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참조 : 행정기획실장
 제목 : 2019년도 제7회 생명보듬주일 협력 건 [세계자살예방주간]
 발신 :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이사장:임용택 / 대표:조성돈 / 이사:김양재,노용찬,이종국,정성진,정현구,조흥식,권구현,장동학,최의현,
 장철상,김대동,박상철,유영권,박광리,임재용,김학중

1.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사랑과 복음으로 한국사회의 생명문화 확산과, 자살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전문민간단체입니다.
3. 2013년부터 세계자살예방의날(9/10)을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명보듬주일”을 선포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통하여 기독교의 생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Walking 캠페인, 교육 및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2019년 제7회 생명보듬주일(9월8일 주일)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건강한 교단과 단체들과 함께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하는 생명의 주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감독회장님과 교단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한국사회의 생명문화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 제7회 생명보듬주일 안내]

- 대표자 간담회 : 7월17일(수) 조찬모임(오전7시 시청 달개비) / 교단 담당자 참석요청
 - 생명보듬주일선포식[기자회견 / 문화행사] : 8월 31일(토) 14:00-16:00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 생명보듬주일 : 9월 8일(주일) / 설교문[장년, 청년], 성경공부교재, 동영상자료 등 배포
[전국지부 / 지역교회 참여]
 - 생명보듬주간행사 : lifeWalking 생명보듬페스티벌[자살예방캠페인]
 - 서울 신촌 LifeWalking 8/24(토) 신촌감리교회 외 지역단체
 - 서울 국회의사당(예정) LifeWalking 국민대회 9/5(목) 안실련(국회의원) 및 종교계
 - 안양 생명사랑 LifeWalking 9/8(주일) 안양감리교회, 지역교회 및 유관단체
 - 기타 오송, 파주, 충남, 전북 등 예정
- 별첨자료] 2019 생명보듬주일 자료

이사장 임용택[안양감리교회]
 대 표 조성돈



2019 생명보듬선포식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12:15)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제7회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9/8)

제6회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Walking 생명문화캠페인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최근 자살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한국사회의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자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원인 5위,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2위입니다. 매일 3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한국사회와 지역 사회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운동에 함께 한다면 한국사회의 아픔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생명보듬선포식[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민간단체로서, 한국교회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단체들과 함께 교육사업, 캠페인문화사업, 유가족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생명보듬선포식을 통해서

- ① 제7회 생명보듬주일(9월8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보듬주일은 자살예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한국사회의 자살문제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② 제6회 전국 생명보듬 페스티벌 "LifeWalking" 을 통해서 생명의 문화가 한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③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에 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지역, 교육사역 등]

한국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통해 자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I. 2019년 제7회 생명보듬주일 [9월8일 주일]

- 생명보듬주일 설교문(성인, 청소년), 교육교재(청소년), 동영상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9월8일 주일, 한국교회가 자살예방에 동참하여, 한국사회의 영적 회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올해 생명보듬주일은 자살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와 위기에 있는 가정과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진행됩니다.

1.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한국사회의 자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예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생명 사랑의 가치를 회복한다.

2. 세계자살예방의 날(9/10)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살예방행사에 교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자살예방과 감소에 영적 실질적 역할을 감당한다.

3.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보듬주일” 선포와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자살예방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행한다. [생명의한칸운동 - 주보 한칸에 도움전화번호 넣기]

예]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 보건복지상담 129 / 한국청소년상담원 1388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생명보듬주일자료 : 주일설교 / 기도문
 청소년설교
 교육교재
 동영상

- 진행방법 : 개교회주일예배[설교문,기도문,동영상,청소년예배자료,홍보 및 후원카드]

- 참여방법 : 교회 신청[홈페이지 다운로드/전화 및 이메일신청/포스터, 자료집 제공]

[문의 및 안내 070-8749-2114/lifehope.or.kr/lifehope21@hanmail.net]

II. 2019년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Walking” 생명문화 캠페인

-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명문화캠페인으로 확산되어 진행됩니다.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자리잡은 생명보듬페스티벌[2014~2018]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명문화 운동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III. 2018년 생명보듬주일 / LifeWalking 생명보듬 캠페인 자료





시사 > 견해기사

“생명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하다...이 사실 주변에 알리는 키 퍼슨 되자”

생명보통주일주간...예배 걷기 행사

입력 : 2018-09-30 00:00



경기도 안양감리교회 성도들이 생명보통주일인 9월 '라이프워킹' 루고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예배드리고 있다. 안양감리교회 제공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모든 외로운 이거년 바로 그 사람.”(‘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중에서)

9일 오전 경기도 안양감리교회(임용택 목사) 예배당에 가수 안치환의 노랫말이 울려나왔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시 139:31-16)란 제목으로 강단에 선 임용택 목사는 “사람은 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이며 그 이유는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한 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시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 자살예방백서’의 우리나라 자살현황 소개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 동기 1위는 ‘정신과적 문제’(36.2%)였다”며 “이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의 구 성원인 성도들이 ‘생명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키 퍼슨(key person-기간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생명보통주일을 맞아 라이프포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 교수)가 한국 교회에 공유한 공동설교문이다. 라이프포프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교회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생명보통주일(9월 둘째 주)을 제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날 예배당엔 교회 슬로건과 성경말씀 대신 ‘제7회 사랑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를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성도들은 ‘라이프워킹(Life walking)’ 루고가 박힌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걷기축제가 열리는 평촌중앙공원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서울 반포한강공원 여백성 앞은 라이프포프가 주관하는 ‘제6회 생명보통 페스티벌’에 모인 시민들로 북적였다. ‘생명나무 메시지 전하기’ 부스에 들른 국민영(39·여)씨는 지난해에 이어 초등학생 남매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국씨는 “자살 관련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난감했는데 페스티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어 좋다”고 했다.

2km구간에 걸친 걷기행사 후에는 자살 유가족 관리장진이 발표됐다.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나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조성돈 대표는 “교회는 어떤 집단보다 생명의 존귀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토대가 잘 갖춰져 있다”며 “성도들이 일상 속 게이트키퍼가 되 줄 때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HOME > 교계

생명은 소중한 것, 라이프호프 생명보듬페스티벌 연다

9월 10일(토) 반포 한강공원 예빛섬, 문화공연과 걷기대회

장창일 기자 | 승인 2016.08.18 | 수정 2016.08.18 15:59 | 0호 | 조회수 : 593

9월 11일(주일)엔 생명보듬주일로 선포, 홈페이지서 설교 등 자료 배포



▲ 라이프호프가 지난 17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행사에 대한 설명을 했다. 사진/장창일 차장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이사장:이문희, 대표:조성돈)가 오는 9월 10일(토) 세계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반포 한강공원 예빛섬 앞 광장에서 제3회 생명보듬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걷기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심있는 교인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함께 참가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빛섬에서 서래섬을 돌아오는 2km 코스를 함께 걷고 한빛예술단의 문화공연과 자살예방의 의미를 담은 플래시몹 등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홈페이지(www.lifehope.or.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봉사점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살예방 사전교육에 참여하고 당일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경우 봉사점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연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목사는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존중 사상이 확산되어야 자살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이 일을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회의 소그룹 리더나 구역장들에게만이라도 자살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행사에 교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라이프호프는 이튿날인 11일(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설교와 교육자료, 포스터 등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라이프호프는 세대에 따른 예배설교를 위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대예배), '생명을 살리는 방법(청소년설교), '통하고 싶어, 우리는 친구이니까'(청소년성경공부) 등의 설교문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생명을 향한 한 걸음

제5회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 WALKING 은
소중한 생명을 보듬기 위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 입니다.

2018. 9. 9 (일) 오후 4시~7시 (3시간)

반포한강시민공원 예빛섬 앞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도보 약 20분)

생명을 보듬고 싶으신 분 누구나

(사전등록 선착순 1500명)

일 정 등록 ▶ 부스체험 ▶ 기념식 ▶ 걷기 (2 km)
▶ 문화공연 ▶ 해산

특 전 1365 봉사점수 3시간 인정 (사전등록 LifeWalking 참가자)
1365 봉사점수 6시간 인정 (사전등록 현장 보조 요원)
*사전 등록 참가자 티셔츠 증정

사전접수 ①1365 로그인 접속 ▶ 개인 봉사 참여 ▶ 봉사제목 생명보듬
▶ 9/9 봉사시간설정 ▶ 조회하기 ▶ 신청
② <http://lifehope.or.kr/> ▶ 공지사항
▶ 서울반포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Walking 안내 ▶ 신청

문 의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070-8749-2114
담당자 010-3228-8380
*우천시 행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후원 |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생명의 **주님**
이 땅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 하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12:15)

생명보듬주일

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예배와 기도를 하고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2018.09.09 생명보듬주일 (제6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주일

장년부 설교문

청소년 설교문

교육교재

생명주일 헌금은 한국 사회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사역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생명헌금 후원계좌 : 국민은행 924501-01-317709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이 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버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현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임용택 목사 (안양감리교회, LifeHope이사장)

본문 시편 139:13-16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란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도 좋고 가사도 참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것을 꽃에 비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장미꽃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백합화에 비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자스민 꽃에 비유합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자스민 향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에 아름답습니다.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가면 '황소머리'라는 피카소 작품이 있습니다. 1942년에 피카소가 낡은 자전거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전거의 안장은 황소의 얼굴이 되고, 자전거 핸들은 황소의 뿔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지 50년 정도 지난 후에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약 300억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고 합니다. 남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낡은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닿자 보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다 망가진 탁자와 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창고 세일을 했는데 무려 1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최고의 문호 도스트 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쓸 때 사용한 탁자와 펜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작품,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황소머리'의 재료가 버려진 낡은 자전거이고, 별 볼품이 없어 보여도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피카소의 작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귀한 이유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심을 잘 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 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3-14)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시 139:13-14)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빚으셨다'를 영어로 knit란 표현을 씁니다. 옷 중에서도 니트웨어는 만드는 분이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귀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공장에서 똑같이 대량으로 출시된 상품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만드신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란 말입니다. 몸속의 작은 뼈 하나, 세포 하나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머리털까지 만드셨고 그 수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또한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록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태중에 있는 생명도 사람이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의미 없이 빛어진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 계산 방식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서양에서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지만 우리는 태중에 존재한 날부터 나이를 계산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생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생일은 태중에서 빛어진 날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의 탄생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시 139:16)

사람은 그 누구도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그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날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하나님의 섭리 중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 존재에 감사하고 환호하라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옛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기하고 묘하기가 측량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묘막측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

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6-28)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복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놀라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놀라움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자신을 볼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이건 걸작이야! 걸작 중의 걸작이야! 꽃보다 아름다운 걸작이야! 정말 놀라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행복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불행합니다. 자신을 걸작품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의 자화상을 허무는 세력이 많습니다. 자화상이 무너질 때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 자살현황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하는데, 이 수치는 OECD 국가의 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2016년 한 해만 보면 13092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0분에 한 명씩 자살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5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물질 중심의 사회적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7년 IMF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1997년엔 10만 명당 11명

이 자살했는데, 그 후 계속 증가해서 2010년에는 10만 명당 33.5명까지 높아졌습니다. 2010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2018자살예방백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주요 동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정신과적 문제(36.2%)입니다. 그리고 경제생활 문제(23.4%), 육체적 질병문제(21.3%), 가정문제(8.9%), 직장내 문제(3.9%) 순입니다.

정신과적 문제 다음이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정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풍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지만 1950-60년대 경제적 어려움에 비하면 매우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자화상을 허무는 질문들입니다.

■ 자화상을 파괴하는 3가지 질문

첫째, 당신은 얼마나 소유했습니까? 입니다. 사람이 소유한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연봉이나 출연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물음은 건강한 자화상을 지니지 못하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연봉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연예인들은 출연료가 자신이라고 오해합니다. 출연료가 높다고 존재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비교는 비, 비참해지거나 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 연봉이 적으면 자신이 비참해지고, 비교해서 남보다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비교는 열등감내지 우월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둘 다 건강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며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해마다 수능일이 되면 수험생이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나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어딘가 있고, 더 좋은 성적을 지닌 사람이 어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신 8:3)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평가하려는 사탄의 가치관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소유로 평가되어선 안 됩니다. 사람은 소유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소유했느냐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물음입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치가 높고, 별볼 일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했을 때,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마 4:9-10) 사탄은 높은 지위와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위와 자리가 중요한 가치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직장이나 지위나 직업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입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 얻으려고 살다 보면 공허해집니다. 페이스북의 조회 수나, 트위터의 댓글 수가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마 4:6) 누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아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당장 유명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유명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롬 5:6-10)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므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사 43:4)

■ 키퍼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평가하는 질문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지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수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생각 한 가지에만 깊이 빠져드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곳을 빠져나갈 유일한 대안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실요법의 창시자 윌리엄 글라서는 사람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을 키퍼슨(Key person)이라고 했습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지극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핵심인물입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자살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꼈던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충동을 극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교회 구역장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출석하기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려웠던 자신을 늘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구역장과 대화하면 자신이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역장이 키퍼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 유가족들의 자살 충동은 일반인에 비해 8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교회 성장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며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꽃보다 아름답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아파하는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애도가 없는 위로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키퍼슨이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키퍼슨이 됩시다.

“희미한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힘”

안효종 목사 (신촌대현교회 교육담당)

본문 고린도전서 13:7-13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하며 “거울 단계” 이론을 제시합니다. “거울 단계”는 태어난 지 6개월에서 18개월 된 어린아이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이론입니다.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이미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의 극적인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막연하게나마 ‘나는 저거야.’, ‘저게 나야.’라는 식의 자기 발견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명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이미지를 보고서, 거울 속에 비친 그 이미지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이고, 또 자기 자신의 몸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비록 조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하나의 자율성 또는 개인의 통제력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갑니다. 손을 들어보고, 발을 움직여보고, 웃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거울에 비칠 때,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이상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자기 자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 아이는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을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거절당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이들은 아빠, 엄마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이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가지고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친구라는 이름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아이는 살아가게 됩니다. 친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화려하면 자신이 화려한 것이고, 친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면 자신이 초라한 것입니다. 이때의 아이들은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이때의 아이들은 '친구 따라 지옥도 갈' 애들입니다.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아도, 선생님한테 칭찬 못 들어도, 내 곁에 친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친구라는 이름의 거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또 흘러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 어른이 된 아이들은 더 이상 친구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가지고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을 거울로 삼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아이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당당하고 힘이 있는 것이고,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으며, 무능력한 존재로 기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세상 기준에 따라 돈 많이 벌어서, 땀땀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아빠가 아빠인 것이고, 부자 친구가 친구인 것이 됩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 취미로 여기면 그만입니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거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온갖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혼동하며, 우리는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비친 모습, 친구에게 비친 모습,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에 비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울 단계"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이 아이의 모습을 완벽하게 전달해주지 못함으로 아이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 자신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반대입니다. 이는 거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왼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나는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영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쁘다고 말 합니다. 부모라는 거울, 친구라는 거울, 세상이라는 거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모습을 비추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그렇게 항상 희미하며 흐릿하게 왜곡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닦아도 그 거울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부모라 하여도, 친구라 하여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가치관이라 하여도, 그 거울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비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불완전한 거울 앞에서 서로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미하기에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거울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세상 역시 모든 것이 희미할 따름입니다. 한 개인이 희미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희미하며, 이 시대가 희미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울로 희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희미한 시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완전한 거울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희미하고 흐릿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울은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 말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떠한 대안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확하게 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희미한 시대를 버티어 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흐릿한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7절 말씀에 표현대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갑자기 많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운 좋게 합격하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희미하고 흐릿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내야 하며, 믿어야 하며, 바래야 하며, 견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희미한 시대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희미함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미하고 흐릿한 것으로 인한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답답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따름입니다.

고린도교회에 돈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고린도교회에는 참 많은 거울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거울이 깨끗하고 완전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지속적인 다툼과 갈등, 분열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결국 그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말 합니다. 사랑 없이, 그저 불완전한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네 모습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완전한 거울의 소유가 아니라, 불완전한 거울을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희미하고 흐릿한 시대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희미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교회 안에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의 책 『곰보빵』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 낸 건 아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행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뼈뿔어졌다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어긋났다고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거울에 비친 것만을 보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또 하루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맞추어 드리지는 생명보듬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불완전한 거울로 인해 생명을 오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의 힘으로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버틴 여러분의 하루, 사랑으로 지켜낸 여러분의

하루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지킬뿐 아니라 너의 생명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오늘날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인생의 거울이 희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바라며, 서로를 건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의 몸짓들로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구호 운동가로 활동하는 한비아 씨가 쓴 책 “그건 사랑이었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역시 잘하고 있을 땐 요란하고 화려한 응원을 받고 싶지만
요즘처럼 기분이 가라앉거나 풀이 죽어 있을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응원,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응원,
그리고 가만히 안아주는 응원, 그런 조용한 응원을 받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 언제나 인생이 오르막은 아닙니다. 잘 올라가다가도 불현듯 뜻하지 않은 일로 주저앉고 내리막을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 살다 보면 울고는 싶은데 울 기운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울음을 삼키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 일으키면 그보다 더 큰 응원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응원,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응원입니다. 그저 가만히 다가와 안아주는 응원입니다. 그런 “조용한 응원”으로 생명을 지키는 힘,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랑을 담은 조용한 응원”만 있으면 이 희미한 시대에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 먼저 좌절하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것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힘으로 희미한 시대 속에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조용한 응원으로 서로의 생명을 품어주는 진정한 “생명보듬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김주선 목사 (덕풍교회 부목사)

본문 잠언 4:20-27

이야기 속으로~Talk.Talk.Talk.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단어들어 들어 있을까요?]

준비물 / 투명 슬라임, 슬라임에 섞는 재료들(진주 사이즈, 1인당 20개 정도), 네임펜

※ 진행: 투명 슬라임에 네임펜으로 마음에 상태를 적은 구슬 등의 재료를 넣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슬라임에 재료들을 섞는다.

- ◆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요?(5가지)
왜 그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일까요?

- ◆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요?(5가지)
왜 그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일까요?

- ◆ 나는 어떤 단어들을 좋아할까요?(5가지)
왜 그 단어들을 좋아하나요?

- ◆ 평소에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요즘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5개)

거룩한 수다~ Talk. Talk. Talk.

슬라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감정이나, 쉽게 자주 보이는 그 감정이 내 마음에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슬라임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복 할 때 생각나는 단어들과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의 수다~ Talk. Talk. Talk.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잠 4장 20-27절

- 20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 22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 25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
- 26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 2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막에서 떠나게 하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큰 차를 타면 큰 사람으로 보고, 작은 차를 타면 작은 사람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사람만 볼 줄 알고 마음으로 보이는 속사람은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걸사람이 전부 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을, 비뚤어진 말을 쏟아냅니다. 눈이, 눈꺼풀이, 발이 곧지 않게 갑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며 악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옷'은 갈아입으면 그만입니다. '차'도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은 언제든지 이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오랜 시간 가질 수 있는 '직업' 또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깐 보이는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구부러진 말과 비틀어진 말에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에 상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귀와 눈과 마음에서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해치는 구부러진 말과 비틀어진 말들은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틀어진 말을 우리에게 던진 사람들은 미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우리를 상처내지 않도록 얼른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흘려보낼수록 흔적이 덜 남게 됩니다. 아예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부러진 말과 비틀어진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래서 우리도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눈을 바로 보며, 발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겨우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오늘만을 가지고 내 인생에 계획 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어려운 것을 꺼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육체에 건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 번 단단히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다~ Talk. Talk. Talk.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어디쯤에 위치 해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로 자존감(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도)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도 스스로 입이 둔하다¹⁾고 했고 바울도 자기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²⁾로 여겼습니다.

'자존감수치'가 낮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잘못' 혹은 '잘 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 하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내는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 출애굽기 6장12절(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2) 빌립보서 3장 8절(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